

한국 성인의 올림피즘에 관한 인식연구

설수황¹, 여인성¹, 안병욱^{2*}

¹연세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²한서대학교 신체활동디자인학과

Study on Perception of Olympism by Korea Adult

Su-Hwang Seol¹, In-Sung Yeo¹, Byoung-Wook Ahn^{2*}

¹Department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Yonsei University

²Department of Physical Activity Design, Hanse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올림피즘에 대한 의식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연구대상자로는 올림피즘에 대한 의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 체육관련 일반인 18명과 엘리트 운동선수 17명 총 35명을 P-sample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관성연구로 알려진 Q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Q-표본은 올림피즘의 태도와 가치에 관한 문헌연구와 연구대상자의 인터뷰 및 개방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34문항을 작성하였다. 자료 처리는 P-표본(35명)에게 Q 분류를 하도록 한 후, QUANL PC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올림피즘에 관한 유형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전통적 가치관, 둘째, 참가의 의미, 셋째, 경쟁과 승부, 넷째, 페어플레이, 다섯째, 윤리 의식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Olympism. For analysis, a Q methodology was applied, which is useful for identifying individual's subjectivity structure. The research question raised in this study included what is Olympism. For this study, a Q-sample, which made 34 statements exploring the Olympism attitude and value system, was used. In addition, a P-sample was composed of 35 statements. Seventeen people with non-physical education involvement and 18 athletic players were selected. Olympism was categorized into five types: 'traditional values', 'meaningful to participate', 'contend for victory', 'fair play', and 'sense of ethics'.

Key Words : cognition, olympism, Q methodology

1. 서론

근대올림픽은 1896년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국제정세의 격변 속에서 살아남아 눈부시게 발전한 전 세계인의 종합체전이다. 역사적으로 올림픽은 각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발달에 지대한 영향과 활력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연결시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 이유는 신체적인 경쟁을 통해서 인간의 지, 덕, 체를 조화 있게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종교적, 인종적, 정치적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과 국가

간의 평등을 실현한다는 평화 주의적 근본원칙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1]. 이처럼 근대올림픽 경기의 근간을 이루고 교육과 문화가 스포츠의 가치로 융합된 올림픽정신을 가리켜 올림피즘이라고 한다[2].

올림피즘의 이념은 고대 올림픽 제전에서부터 파생되었고 쿠베르탱에 의해 채택되었다. 올림피즘은 관용, 단결, 타인에 대한 존중, 페어플레이, 평등, 참여, 우정, 비차별, 인성발달 등의 범세계적이고 보편적 가치를 지니며 [3-4], 시민의 정신철학으로 협동, 성실, 정직, 팀워크, 페어플레이, 우정, 신뢰, 경쟁, 등의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5-6]. 올림피즘에 대한 여러 견해를 살펴보면 IOC위원

*Corresponding Author : Byoung-Wook Ahn(Hanseo Univ.)

Tel: +82-41-660-1547 email: bwahn75@hanseo.ac.kr

Received July 30, 2014

Revised (1st August, 20, 2014, 2nd September, 12, 2014)

Accepted January, 8, 2015

장을 지냈던 Latour는 그것이 아마추어리즘의 실천이고, 법적 규율이기 보다는 마음의 상태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앞서 열거한 여러 가치 중에서도 스포츠의 높은 도덕성을 강조하였다. Edstrom의 연구에 의하면, 올림픽 정신은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신체적인 측면과 더불어 이해와 우정을 강화하고 고귀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Brundage는 올림픽이든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인류가 구현하려고 하는 정신적 이상 내지는 사상을 충족하는 말로서, 인류가 올림픽 경기 근간이 되는 아마추어리즘의 이상을 실현하고 인류평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상을 의미한다는 포괄적인 정의를 내렸다. 그리고 몇 개의 메달과 기록 때문에 수여받는 일시적인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 규약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세계의 젊은이를 화합적으로 양성하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7]. Sun, Lee, Kim과 Kogh[8]는 우정, 통합, 페어플레이, 최선의 추구, 기회균등, 평화, 신체적 도덕적 강인성 그리고 국제적 이해 등이 올림픽즘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라고 하였다. 즉, 승리가 아닌 참여, 지배가 아닌 경쟁,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포용을 뜻하는 것이다. 올림픽현장에서도 “모든 개인은 자신의 욕구와 부합되어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선언하여 스포츠 세계의 ‘포용’과 ‘함께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올림픽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자국의 힘과 자원을 세계에 과시하고자 올림픽경기를 유치하고 참여하는데 관심을 보이면서 국가주의(nationalism)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로 인해 올림픽즘을 살리고 보급하기 위하여 내세웠던 아마추어리즘(amateurism)이 프로페셔널리즘(professionalism)으로 변질되었다. 또한 막대한 TV중계료와 스폰서 수입으로 인한 상업주의(commercialism)의 팽배로 올림픽즘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여 국제적 평화, 페어플레이, 상호 이해보다는 국가의 이해관계, 생존, 이념, 정치적 갈등이 자리를 대체하면서 점차 변질되었다. 올림픽즘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올림픽에 대한 본질과 발전요인의 재조명[1], 올림픽 운동과 교육으로서 올림픽즘의 재조명[9], 국민운동으로서 올림픽즘의 실천방안[10], 윤리적인 측면에서 올림픽즘[7]등의 문헌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2000년대 들어 올림픽즘에 주목한 이유는 올림픽이 순수한 아마추어 정신에 의하여 개최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4년마다 개최되는 올림픽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재해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올림픽을 바라보는 현대인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올림픽즘의 장점을 부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와 올림픽을 바라보는 시민의 인식을 연구하는데 차별성이 있다.

그렇지만 선행연구와 같이 문헌연구로 현대사회에서 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연구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발 더 나아가 실질적인 주관적 인식을 객관적으로 드러냄으로서 선행연구와 차별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역대 원정 올림픽 사상 최고 성적으로 명실상부한 스포츠 강국이 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올림픽즘에 대한 의식을 주관성 연구방법인 Q 방법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올림픽에 대한 이념 및 철학 등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기된 사항들의 해답을 얻기 위하여 한국 성인들이 인식하는 올림픽즘에 관한 인식은 어떠한가? 라는 연구문제를 가지고 주관성연구 분석방법을 활용하며 해석하였다.

2.2 Q 표본

Q 표본을 작성하기 위해서 올림픽에 관한 선행연구[1, 9-10] 및 서적[11-13]과 개방형 질문지 그리고 비 체육인들과 엘리트 운동선수 3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여 올림픽즘에 대한 의식을 수집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Q 진술문 60문항을 수립하였고, 귀납적 내용 범주(inductive categorical system)를 이용하여 내용이 유사한 진술문을 통합, 범주화하여 Q 진술문 34개 문항으로 작성하였다[Table 1].

2.3 P 표본

김상근, 김성주[14]에 따르면 Q 방법은 개인의 내적 중요성의 차이를 다루는 방법으로 P 표본 수와 선정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며, Q 연구의 목적이 표본의 특성으로부터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P 표본의 선정도 확률적 표집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였다.

[Table 1] Q-statements

ID	Q-statements
1	Olympic is the glory of the family.
2	Olympic is a motivation that came to start the movement.
3	The Olympics is the ultimate goal for me.
4	I would like to participate once by all means, the Olympics is a tournament worldwide.
5	Olympic is a festival of the people of the world to be held every four years.
6	Olympic pursue unity and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7	Through Olympics, it is possible to know the stocks did not know everyday.
8	Olympic Games, to create a patriotism.
9	Olympics is a big event for one month together is fun and excitement from the boring day-to-day.
10	Fair play is a spirit (player, referee, audience) of all participating in the Olympic Games to be provided by basically.
11	Fair play's a scheme that can provide entertainment for the audience with the audience.
12	Fair play is a rule that is not visible to the eye between the players.
13	Fair play means competition in good faith and courtesy to the other players.
14	Fair play is a part to be top priority more than anything.
15	Fair play is a spirit the most basic to be able to show their ability fairly.
16	Fair play is a moral code to protect players.
17	If you put significance to Olympic participation, greed game is lost, interest will be halved.
18	Representative is of great significance to be being able to brighten the country to participate in the Olympic Games.
19	It is a great honor to both be acquired when you participate in competitions worldwide, such as the Olympic Games.
20	Significance to be placed in the Olympic participation athletes it is hard to convince.
21	Regardless of the do not have a situation in the country economy is tough, looking at the players to compete, there is great significance to participation.
22	I think athletes are right that facing the competition by placing the objective to win.
23	Athletes must accept unconditionally the results of the game.
24	Athletes, regardless of the result, there must be in the on defeat to congratulate the victory of the other party.
25	It is necessary to protest the result of the John Donne is to leave it to accept on the result of the unfair competition acts largely on the confidence of the players.
26	The correct when the good results came out with the incorrect decision, to protest a national, but the individual is to accept humbly.
27	It is a posture should be provided also know that you accept the result of the competition of the athlete.
28	Unfair judgment, must be managed thoroughly with tournament and the country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on the results of the competition.
29	In order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outcome of the game, not to the misjudgment, the referee is a need appropriate education.
30	SPORT FOR ALL is the Olympic spirit that you can look good together people around the world become one through sports.
31	Regardless of ideology and politics through sports, Olympic's to one in the human race.
32	Spirit of SPORT FOR ALL that can elite physical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life to grow together must be of life.
33	In each country, and taking advantage of the spirit of SPORT FOR ALL, You must make an effort so that everyone can participate in the Olympic Games.
34	Is worth taking advantage of the spirit SPORT FOR ALL, you must go to place a peaceful society.

본 연구의 P 표본은 비 체육관련 일반인과 엘리트 운동선수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자를 구분한 이유는 일반인과 선수들에 따라 올림픽즘에 대한 의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 18명, 운동선수 17명, 총 35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4 Q 분류

Q 분류는 순위정하기 절차와 유사한 것으로 연구 대상자가 특정한 조건을 그의 관점에 따라 중요한 순서대로 배치하는 것이다. 즉, P 표본으로 구성된 연구대상자들에게 진술문 카드(Q 표본)를 제시하고 일정한 분포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는 강제분포(forced distribution)방법을 이용하였다. 그 후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직접 진

술문 카드를 한 장씩 제시함으로써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였다. 진술문 분류 시 자신이 가장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가장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진술문을 선택하게 하는 순서로 Q sort 분류지에 맞게 9점 척도로 카드를 분류하도록 하였다. 우선 진술문이 적힌 34장의 카드를 읽고 긍정(+), 중립(0), 부정(-)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후 긍정적인 진술문 중 가장 강하게 긍정하는 카드를 차례로 선택하여 오른쪽 바깥에서(+4)부터 중립부분(0)까지 분류하였다. 또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은 왼쪽(-4)에서부터 가장 부정하는 카드를 차례로 선택하여 중립부분(0)까지 분류하였다. 따라서 각 개인의 평균값은 언제나 '0'이며, 표준편차는 동일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카드를 분류한 후에

는 긍정적인 이유와 부정적인 이유를 각각 쓰도록 하였다.

2.5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방법으로는 수집된 자료를 가장 부정하는 경우를 1점으로 시작하여 9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뒤 부여된 점수를 진술문 순서대로 코딩하여 QUANL PC program에 의한 주인자분석법(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올림픽즘의 유형 형성

올림픽즘의 유형에 대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 5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 변량을 살펴보면, 유형 I은 6.607 유형 II는 4.028, 유형 III은 2.998, 유형 IV는 2.133, 유형 V는 1.570으로 나타났다. 이 변량이 전체 변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유형 I이 17.8%, 유형 II 10.8%, 유형 III 8.1%, 유형 IV 57.7%, 유형 V 4.2%이며, 총 46.8%의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Eigenvalue & Variance

	Eigenvalue	% of variate	cumulative %
Type I	6.607	17.8	17.8
Type II	4.028	10.8	28.7
Type III	2.998	8.1	36.8
Type IV	2.133	57.7	42.6
Type V	1.570	4.2	46.8

유형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형 I 과 유형 II간의 상관관계는 .271, 유형 I 과 유형 III은 -.099, 유형 I 과 유형 IV는 .379, 유형 I 과 유형 V는 .250이며, 유형 II와 유형 III은 .111, 유형 II와 유형 IV는 .247, 유형 II와 유형 V는 .072로 나타났다. 유형 III과 유형 IV는 -.051, 유형 III과 유형 V는 .279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형 IV와 유형 V는 .231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five factors

	1	2	3	4	5
Type I	1				
Type II	.271	1			
Type III	-.099	.111	1		
Type IV	.379	.247	-.051	1	
Type V	.250	.072	.279	.231	1

Q 방법론에서 요인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낮을수록 즉, 0에 가까울수록 독립적인 관계임을 나타낸다. 이처럼 유형 간의 상관관계가 낮고 대립적이라는 것은 유형의 분류가 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요인분석에 의해 P 표본 35명을 Q 분류한 결과 값은 [Table 4]와 같으며, 각 유형 내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다.

[Table 4] The factor weights of the five factors

Type	ID	age	gender	preference sport	weight factor
Type I (n=7)	3	21	male	soccer	.479
	7	34	male	swimming	.418
	9	61	female	tennis	1.471
	11	35	male	golf & baseball	1.685
	14	20	male	soccer	2.971
	19	24	male	soccer	1.053
	25	27	female	horse riding	.497
Type II (n=7)	13	20	male	soccer	1.064
	15	22	female	baseball	.324
	17	40	male	soccer	1.107
	18	43	male	soccer	.929
	33	22	male	bowling	.869
	35	20	male	golf	.566
Type III (n=5)	36	20	male	golf	2.289
	28	39	female	horse riding	.467
	29	35	male	horse riding	.307
	31	25	female	shooting	1.335
	32	25	male	taekwondo	1.011
Type IV (n=10)	34	21	female	shooting	1.121
	1	22	male	soccer	.437
	4	21	male	soccer	.990
	5	21	male	golf	.783
	6	36	male	soccer	.528
	8	32	female	baseball	1.065
	12	20	male	basketball	.655
	16	35	male	soccer	.787
	24	40	male	horse riding	.856
	26	28	male	horse riding	1.665
30	35	female	horse riding	1.666	
Type V (n=6)	2	22	female	figure skating	.492
	10	34	male	soccer	1.283
	20	24	male	soccer	.575
	21	23	male	basketball	.582
	22	27	male	judo	.466
	23	26	female	golf	.343

3.2 올림픽즘의 유형

3.2.1 제 I 유형 : 전통적 가치관

제 I 유형 구성원은 일반인 2명, 운동선수 5명 총 7명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남자 5명, 여자 2명으로 분포되었

[Table 5] The statements above ± 1 of Z-score in factor I.

ID	statements	score
8	Olympic Games, to create a patriotism.	1.87
14	Fair play is a part to be top priority more than anything.	1.22
5	Olympic is a festival of the people of the world to be held every four years.	1.19
13	Fair play means competition in good faith and courtesy to the other players.	1.17
10	Fair play is a spirit (player, referee, audience) of all participating in the Olympic Games to be provided by basically.	1.08
11	Fair play's a scheme that can provide entertainment for the audience with the audience.	-1.01
3	The Olympics is the ultimate goal for me.	-1.02
2	Olympic is a motivation that came to start the movement.	-1.07
7	Through Olympics, it is possible to know the stocks did not know everyday.	-1.14
23	Athletes must accept unconditionally the results of the game.	-1.27
24	Athletes, regardless of the result, there must be in the on defeat to congratulate the victory of the other party.	1.42
26	The correct when the good results came out with the incorrect decision, to protest a national, but the individual is to accept humbly.	-1.61
22	I think athletes are right that facing the competition by placing the objective to win.	-2.10

고, 선호하는 스포츠는 축구, 수영, 야구, 승, 골프, 테니스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까지 고루 분포되었고, 60대도 포함되어 있었다. 제 I 유형의 진술문에 대해서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올림픽은 애국심을 생기게 한다.'가 가장 긍정적인 동의를 보였고, '페어플레이는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축제이다.', '페어플레이는 상대방 선수에 대한 예의와 선의의 경쟁을 의미한다.', '페어플레이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두(선수, 심판, 관중)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정신이다.'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정적인 동의를 진술문으로는 '운동선수들은 승리에 목적을 두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가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고, '부당한 판정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국가적인 항의는 하되 개인은 겸허히 승복하는 것이 옳다.', '운동선수는 결과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승리는 축하해주고 패배는 위로해 주어야 한다.', '운동선수는 경기결과에 무조건 승복해야한다.', '올림픽을 통해 평소 알지 못했던 종목을 알게 될 수 있다.', '올림픽은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이다.', '올림픽은 나의 최종 목표이다.', '페어플레이는 관람객과 시청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다.'순으로 나타나 전통적 가치관이라고 명명하였다. 그 이유는 애국심, 4년마다 열리는 축제, 페어플레이의 중요성등과 같은 올림픽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인의 가치관에 관련된 진술문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다<Table 5>.

3.2.2 제II유형 : 참가의 의미

제II유형의 구성원은 일반인 4명, 운동선수 3명 총 7명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남자 5명, 여자 2명으로 분포되었고, 선호하는 스포츠는 축구, 야구, 골프, 볼링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20대와 40대로 분포되어 있었다. 제 II유형의 진술문에 대해서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올림픽 출전은 가문의 영광이다.'가 가장 긍정적인 동의를 보였고, '올림픽은 꼭 한번 참가해보고 싶은 세계적인 대회이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축제이다.', '올림픽은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이다.', 올림픽은 나라간의 경쟁과 화합을 추구한다.'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정적인 동의를 보인 진술문으로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함께 발전 할 수 있는 SPORT FOR ALL 정신이 생활화 되어야 한다.'가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고, '각국에서는 SPORT FOR ALL 정신을 살려 모두가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해 정치 또는 이념에 관계없이 인류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SPORT FOR ALL 정신을 살려 보람 있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운동선수는 결과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승리는 축하해주고 패배는 위로해 주어야 한다.', 'SPORT FOR ALL은 전 세계인이 스포츠를 통해 하나가 되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올림픽정신이다.'순으로 나타나 참가의 의미라고 명명하였다. 그 이유는 승리를 위한 진술문 보다 출전과 참가에 대한 진술문에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다<Table 6>.

[Table 6] The statements above ± 1 of Z-score in factor II.

ID	statements	score
1	Olympic is the glory of the family.	2.32
4	I would like to participate once by all means, the Olympics is a tournament worldwide.	2.03
5	Olympic is a festival of the people of the world to be held every four years.	1.62
2	Olympic is a motivation that came to start the movement.	1.35
6	Olympic pursue unity and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1.27
30	SPORT FOR ALL is the Olympic spirit that you can look good together people around the world become one through sports.	-1.10
24	Athletes, regardless of the result, there must be in the on defeat to congratulate the victory of the other party.	-1.14
34	Is worth taking advantage of the spirit SPORT FOR ALL, you must go to place a peaceful society.	-1.17
31	Regardless of ideology and politics through sports, Olympic's to one in the human race.	-1.47
33	In each country, and taking advantage of the spirit of SPORT FOR ALL, You must make an effort so that everyone can participate in the Olympic Games.	-1.56
32	Spirit of SPORT FOR ALL that can elite physical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life to grow together must be of life.	-1.75

3.2.3 제III유형 : 경쟁과 승부

제III유형의 구성원은 일반인 5명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남자 2명, 여자 3명으로 분포되었고, 선호하는 스포츠는 승마, 사격, 태권도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제III유형의 진술문에 대해서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살펴보면,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올림픽은 나의 최종목표이다.'가 가장 긍정적인 동의를 보였고, '올림픽은 꼭 한번 참가해보고 싶은 세계적인 대회이다.', '운동선수가 올림픽 참가에 의의만 둔다는 것은 수궁하기 어렵다.', '심판들은 경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 오심을 하지 않도록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운동선수들은 승리에 목적을 두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부당한 경기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선수의 자신감에 크게 작용하므로 정당한 결과가 나오도록 항의해야 한다.', '경기결과에 부당한 판정은 IOC(국제올림픽위원회)나 대회 개최국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어야 한다.', '올림픽과 같은 세계적인 대회에 참가하는 것과 승리하는 것 모두 큰 영광이다.'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정적인 동의를 보인 진술문으로는 '운동선수는 경기결과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가 가장 부정적인 동의를 보였고, '페어플레이는 관람객과 시청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다.', '올림픽은 무료한 일상에서 감동과 즐거움이 함께한 한 달간의 빅 이벤트이다.', '페어플레이는 선수 간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다.', '페어플레이는 선수가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이다.' 순으로 나타나 경쟁과 승부로 명명하였다. 하지만 III유형에 5명의 구성원이 일반인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 되었다. 일반적으로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승리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일반인들이 승리를 더욱 갈망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1등만을 원하는 승리지상주의가 가지고 온 부정적인 결과물인 것이다. 따라서 KOC와 대한체육회에서는 스포츠를 국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Table 7].

3.2.4 제IV유형 : 페어플레이

제IV유형의 구성원은 일반인 3명, 운동선수 7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남자 8명, 여자 2명으로 분포되었고, 선호하는 스포츠는 축구, 야구, 농구, 승마, 골프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40대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제IV유형의 진술문에 대해서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살펴보면,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페어플레이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두(선수, 심판, 관중)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정신이다.'가 가장 긍정적인 동의를 보였고, '페어플레이는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다.', '페어플레이는 상대방 선수에 대한 예의와 선의의 경쟁을 의미한다.', '페어플레이는 선수 간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다.', '페어플레이는 선수가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이다.'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정적인 동의를 보인 진술문으로는 '올림픽은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이다.'가 가장 부정적인 동의를 보였고, '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해 정치 또는 이념에 관계없이 인류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각국에서는 SPORT FOR ALL 정신을

[Table 7] The statements above ± 1 of Z-score in factor III.

ID	statements	score
3	The Olympics is the ultimate goal for me.	1.90
4	I would like to participate once by all means, the Olympics is a tournament worldwide.	1.80
20	Significance to be placed in the Olympic participation athletes it is hard to convince.	1.72
29	In order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outcome of the game, not to the misjudgment, the referee is a need appropriate education.	1.47
22	I think athletes are right that facing the competition by placing the objective to win.	1.29
25	It is necessary to protest the result of the John Donne is to leave it to accept on the result of the unfair competition acts largely on the confidence of the players.	1.24
28	Unfair judgment, must be managed thoroughly with tournament and the country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on the results of the competition.	1.19
19	It is a great honor to both be acquired when you participate in competitions worldwide, such as the Olympic Games.	1.08
16	Fair play is a moral code to protect players.	-1.00
12	Fair play is a rule that is not visible to the eye between the players.	-1.16
9	Olympics is a big event for one month together is fun and excitement from the boring day-to-day.	-1.23
11	Fair play's a scheme that can provide entertainment for the audience with the audience.	-1.43
23	Athletes must accept unconditionally the results of the game.	-2.07

살려 모두가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당한 관정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땐 국가적인 항의는 하되 개인은 겸허히 승복하는 것이 옳다.’순으로 나타나 페어플레이라고 명명하였다. 그 이유는 페어플레이에 관련된 진술문에 긍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성인들이 스포츠에 참여함에 있어서 승패를 떠나 공정한 경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회를 주최하는 협회에서는 오심 없이 공정한 경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심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Table 8].

3.2.5 제V유형 : 윤리의식

제V 유형의 구성원은 일반인 4명, 운동선수 2명 총 6명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남자 4명, 여자 2명으로 분포되었고, 선호하는 스포츠는 축구, 농구, 유도, 골프, 피겨스케이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제V 유형의 진술문에 대해서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심판들은 경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 오심을 하지 않도록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에 가장 긍정적인 동의를 보였고, ‘올림픽은 애국심을 생기게 한다.’,

[Table 8] The statements above ± 1 of Z-score in factor IV.

ID	statements	score
10	Fair play is a spirit (player, referee, audience) of all participating in the Olympic Games to be provided by basically.	2.11
14	Fair play is a part to be top priority more than anything.	1.92
13	Fair play means competition in good faith and courtesy to the other players.	1.50
12	Fair play is a rule that is not visible to the eye between the players.	1.40
16	Fair play is a moral code to protect players.	1.16
26	The correct when the good results came out with the incorrect decision, to protest a national, but the individual is to accept humbly.	-1.31
33	In each country, and taking advantage of the spirit of SPORT FOR ALL, You must make an effort so that everyone can participate in the Olympic Games.	-1.47
31	Regardless of ideology and politics through sports, Olympic's to one in the human race.	-1.70
2	Olympic is a motivation that came to start the movement.	-2.04

[Table 9] The statements above ± 1 of Z-score in factor V.

ID	statements	score
29	In order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outcome of the game, not to the misjudgment, the referee is a need appropriate education.	1.72
8	Olympic Games, to create a patriotism.	1.66
27	It is a posture should be provided also know that you accept the result of the competition of the athlete.	1.60
28	Unfair judgment, must be managed thoroughly with tournament and the country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on the results of the competition.	1.54
22	I think athletes are right that facing the competition by placing the objective to win.	1.39
19	It is a great honor to both be acquired when you participate in competitions worldwide, such as the Olympic Games.	1.10
5	Olympic is a festival of the people of the world to be held every four years.	1.03
24	Athletes, regardless of the result, there must be in the on defeat to congratulate the victory of the other party.	-1.01
11	Fair play's a scheme that can provide entertainment for the audience with the audience.	-1.20
17	If you put significance to Olympic participation, greed game is lost, interest will be halved.	-1.33
2	Olympic is a motivation that came to start the movement.	-1.35
12	Fair play is a rule that is not visible to the eye between the players.	-1.37
3	The Olympics is the ultimate goal for me.	-1.77
20	Significance to be placed in the Olympic participation athletes it is hard to convince.	-1.92

‘경기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것도 운동선수가 갖추어야 할 자세이다.’, ‘경기결과에 부당한 판정은 IOC(국제올림픽위원회)나 대회 개최국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어야 한다.’, ‘운동선수들은 승리에 목적을 두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올림픽과 같은 세계적인 대회에 참가하는 것과 승리하는 것 모두 큰 영광이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축제이다.’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정적인 동의를 보인 진술문으로는 ‘운동선수가 올림픽 참가에 의의만 둔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가 가장 부정적인 동의를 보였고, ‘올림픽은 나의 최종목표이다.’, ‘올림픽은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이다.’, ‘올림픽 참가에 의의만 둔다면 승부욕이 없어져 흥미가 반감될 것이다.’, ‘페어플레이는 관람객과 시청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다.’, ‘운동선수는 결과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승리는 축하해주고 패배는 위로해 주어야 한다.’순으로 나타나 윤리의식이라고 명명하였다. 그 이유는 경기결과에 대한 승복, 심판의 오심에 대한 교육과 같은 진술문에 긍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Table 9].

4. 논의

올림픽은 국가, 인종, 문화 등을 초월한 국제적인 사회 운동이며,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평화

롭고 풍요로운 사회건설을 이룩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업주의와 국가주의의 개입으로 인해 태동기부터 내려오는 순수 올림픽즘이 외면당하고 스포츠의 교육적, 도덕적, 사회적 가치까지 무시당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적인 모습이다[7]. 따라서 본 연구는 2012 런던 올림픽에서 역대 원정 올림픽 사상 최고 성적으로 명실상부한 스포츠 강국이 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올림픽즘에 대한 의식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두고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와 함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종합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올림픽즘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유형은 총 5가지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제 I 유형은 ‘전통적 가치관’이라고 명명하였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로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 시청 앞 붉은악마 응원은 세계가 주목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나로 응집된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올림픽을 통해 ‘애국심이 생김’이라는 진술문에 가장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인의 축제’라는 진술문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듯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선수들을 응원하는 국민들은 국가와 민족을 대표하기 때문에 국가성이라는 내재적인 정치적 가치를 지니고 있

다[13]. 하지만 많은 국가들은 올림픽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자국의 힘과 자원을 세계에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승리도 개인적 노력의 결실이라기보다는 국가적 힘의 과시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면서 국가성이 국가주의로 변질되었다. 따라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및 국제스포츠연맹(ISF)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 세계 젊은이들과 인류 전체의 복지증진 및 평화를 추구하고 올림픽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때 올림픽이 국가주의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Ⅱ유형은 ‘참가의 의미’라고 명명하였다. 장주호[13]는 올림픽의 이상을 개인의 명예를 드높이고 개인을 존중하는 것이며, 승리가 아닌 참여, 지배가 아닌 경쟁,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포용이라고 하였다. 올림픽현장에서 스포츠 세계의 ‘포용’과 ‘함께 함’을 강조한다고 나타나 있다. 즉, 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이어야 하며, 경쟁을 통하여 화합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인의 축제’, ‘나라간의 경쟁과 화합을 추구 한다’ 등의 진술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올림픽 이상을 구현한 사례는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의 남·북한선수단의 공동 입장을 예로 들 수 있다. 양국 선수단이 ‘한반도 기’를 앞세우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가운데 ‘코리아’ 이름으로 동시 입장한 사건은 평화, 조화, 우정, 그리고 ‘함께 함’이란 올림픽 이상을 구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17]. 또한 시드니 올림픽에서 자유형 100m 경기에 출전한 아프리카의 ‘에릭 무삼바니’ 선수는 경기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했으나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여 경기력 수준과 인종에 상관없이 출전하여 ‘참가에 의의’라는 올림픽 정신을 실현하였다[18]. 하지만 올림픽이 끝난 후 ‘에릭 무삼바니’는 비즈니스와 상업적 선전에 이용되어 올림픽의 순수성과 이상이 올림픽 상업주의로 변모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올림픽 상업주의가 올림픽을 변모시켜 올림픽이 ‘황금알을 낳는 장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각 국가들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상업주의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올림픽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올림픽의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IOC위원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제Ⅲ유형은 ‘경쟁과 승부’라고 명명하였다. 올림픽 현장에 올림픽은 4년마다 젊은 운동선수들이 다함께 모여 스포츠를 통해 신체적, 도덕적 자질의 발달을 도

모하는 것이고, 상호이해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보다 좋고 우정에 넘치는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교육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올림픽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함으로써 국제 친선을 도모한다고 하였다[19]. 즉, 올림픽은 스포츠 경쟁을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긍정적인 동의를 보인 진술문 중 ‘심판들은 경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 오심을 하지 않도록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부당한 경기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선수의 자신감에 크게 작용하므로 정당한 결과가 나오도록 항의해야 한다.’, ‘경기결과에 부당한 판정은 IOC(국제올림픽위원회)나 대회 개최국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어야 한다.’는 경쟁과 승부 속에서 심판판정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2012년 런던올림픽 펜싱 경기 중 ‘멈춘 1초’는 심판 오심이 한 선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이처럼 심판의 정확한 판정은 4년간 피땀 흘려 준비한 선수들에게 경쟁과 승부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올림픽에서 많은 경기에서 심판에 오심은 경기의 재미와 수준을 좌우한다. 따라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는 참가하는 심판의 자질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보다 나은 경쟁과 승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제Ⅳ유형은 ‘페어플레이’라고 명명하였다. 올림픽 전통 중 1920년부터 시작된 선수서약 내용은 “올림픽 대회의 규약을 존중, 준수하며 스포츠맨십에 의해서 스포츠의 영광과 팀의 명예를 위해서 이 올림픽 경기에 참가할 것을 선서한다.”라고 하여 스포츠맨십에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1968년 이래로 올림픽 주최국 심판 1명은 심판과 임원을 대표하여 “모든 심판과 임원의 이름으로 진정한 스포츠맨십에 입각하여 대회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심판할 것을 선서한다.”라고 선서하여 올림픽 경기는 선수와 심판 모두 스포츠맨십에 의하여 페어플레이 정신을 이상으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1]. 본 연구에서도 ‘페어플레이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두(선수, 심판, 관중)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정신이다.’, ‘페어플레이는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다.’, ‘페어플레이는 상대방 선수에 대한 예의와 선의의 경쟁을 의미한다.’, ‘페어플레이는 선수 간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다.’, ‘페어플레이는 선수가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이다.’ 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올림픽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간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한 승부를 통해 진정한 우승자를 발굴하는 것이다. 즉, 규칙을 지켜

서 우승하는 것이 페어플레이 정신의 핵심인 것이다.

다섯째, 제V유형은 ‘윤리의식’이라고 명명하였다. 윤리의식이란 개인적 행동규범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며,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 관한 가치를 다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영환[7]은 도덕적 행위의 강화는 스포츠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며, 개인의 내재된 본질과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유발된다고 하였다. 특히 경기에 임할 때 규칙을 지켜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는 선수는 모두에게 존경을 받지만, 비신사적 행위를 한 선수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올림픽에서 비윤리적인 행동 변화는 고대올림픽 때 속임수가 주를 이루었다면, 근대올림픽에서는 민족주의, 성차별, 약물중독 등으로 다변화해 있다[18]. 이러한 선수들의 끊임없는 비윤리적인 행동은 고대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 중 단지 1등에게만 올리브 면류관을 수여하고 많은 상금을 주었기 때문에 선수들의 궁극적 목적이 승리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근대올림픽에서는 3등까지 상을 수여하였지만 국가주의와 상업주의로 인해 상금이 높아지면서 시합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선수는 물론 관중들도 승리에 몰두하게 되어 자연히 스포츠맨십은 사라진 승리지상주의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긍정적인 동의를 보인 진술문 중 ‘운동선수들은 승리에 목적을 두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와 부정적인 동의를 보인 진술문 중 ‘운동선수가 올림픽 참가에 의의만 둔다는 것은 수감하기 어렵다.’, ‘올림픽 참가에 의의만 둔다면 승부욕이 없어서 흥미가 반감 될 것이다.’는 선수와 국민들의 인식 속에 승리지상주의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병집[20]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메달의 대한 가치관을 조사한 결과 과반수가 메달대신 현금을 수상을 원한다고 하였고, 메달획득이 우리나라의 국력을 대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자신들이 승패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미루어 보아 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해 인간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것이며, 경쟁과 승부를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올림픽에 있어서 상업주의와 국가주의 개입은 올림픽의 순수한 정신인 올림픽즘을 외면하고 스포츠의 교육적, 도덕적, 사회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올림픽즘을 모두 배제하고 오직 승리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비윤리적인 현실은 오늘날 스포츠계의 가

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조화적 발달을 도모하고 생활 기본요소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스포츠에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올림픽즘을 재인식 할 수 있도록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체육이 올림픽즘의 바탕에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대한체육회(KOC)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올림픽 아카데미(IOC)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와 일반인들이 올림픽즘의 참된 가치를 깨달음으로써 올림픽교육의 당위성을 되살려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2012 런던 올림픽에서 역대 원정 올림픽 사상 최고 성적으로 명실상부한 스포츠 강국이 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올림픽즘을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Q방법론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심리적 주관성을 객관적으로 유형화 하였다. 이를 위해 비 체육관련 일반인 17명과 엘리트 운동선수 각 18명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를 구분한 이유는 일반인과 엘리트 운동선수들에 따라 올림픽즘에 대한 의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한국 성인들이 인식하는 올림픽즘에 관한 인식은 어떠한가? 라는 연구문제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제I유형은 ‘전통적 가치관’ 7명, 제II유형은 ‘참가의 의미’ 7명, 제III유형은 ‘경쟁과 승부’ 5명, 제IV유형은 ‘페어플레이’ 10명, 제V유형은 ‘윤리의식’ 6명으로 분류되었다.

이상의 연구를 마치며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올림픽즘에 대한 국민들이 인식 유형들을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보다 세부적인 인식 조사를 할 필요하다. 둘째, 질적 연구를 통해 나타난 새로운 연구결과를 토대로 양적연구로 타당화 검증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H. K. Koack, "An Overview of the nature and developmental factors in Olympic",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40, No. 4, pp. 21-38, 2001.
- [2]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Olympic Character." Lausanne, Switzerland: IOC, 1999.

- [3] Parry, J. *Globalization, Multiculturalism and Olympic.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Olympic Academy, Vol. 39*, pp. 86-97, 1999.
- [4] Wigmore, S. *Olympism-Values for life*. National Academy, March, 1999, Sheffield. Unpublished paper, pp. 1-6, 1999.
- [5] Ok, G., & Hsu, L. H, "East Asian community and Olympism. *Nationalism, Regionalism, Globalism Philosophy of Movement, Vol. 16, No. 2*, pp. 1-12, 2008.
- [6] Wigmore, S. *Olympism a philosophy of citizenship*. Education and the All-round Development of People. International Forum on Beijing Olympic Education. 24-25th, Nov. 2007.
- [7] Y. H. Lee, "The Consideration and Prospects of the Modern Olympism related to Ethical Aspect." *Philosophy of Movement, Vol. 10, No. 1*, pp. 213-224, 2002.
- [8] B. Sun, S. Lee, S. Kim, & Y. Kogh, "Olympics and Politics." Seoul: Hyung-Seul, 1984.
- [9] H. K. Shin, A Study on Illuminating Olympism as the Foundations of Olympic Movement and Olympic Education. *Philosophy of Movement, Vol. 16, No. 4*, pp. 137-154, 2008.
- [10] D. K. Kim, & H. K. Shin, "Action plans of olympism as a new national campaign." *Philosophy of Movement, Vol. 17, No. 4*, pp. 81-96, 2009.
- [11] Y. Y. Kim, "(The)greatest olympics." Seoul: doosandong, 1990.
- [12] T. Y. Lee, "Says the Olympics." Seoul: seoulsports, 2008.
- [13] J. H. Jang, "Pedagogy of Olympism." Seoul: hyemin, 2005.
- [14] S. K. Kim, & S. J. Kim, "The study on the subjectivity TV program evaluation." *Journal of Human Subjectivity, 12*, pp. 52-79, 2003.
- [15] H. K. Kim, "Q methodology : philosophy, theories, analysis, and application." Seoul: Communication Books, 2008.
- [16] M. C. Kim, "Citizenry Expectations about Hosting The 2014 Asian Gam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Vol. 25, No. 4*, pp. 21-46, 2012.
- [17] Joongbooilbo.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86681>. 2000. 09. 16.
- [18] Segyeilbo. <http://sportsworldi.segye.com/Articles/Sports/Total/Article.asp?aid=20080806003082&subctg1=30&subctg2=00>. 2008. 08. 06.
- [19]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lympic Charter*. Seoul: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1993.
- [20] B. J. Nam, "An Examination of the Consciousness of the Korean National Athletes in Hiroshima Asian Gam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34, No. 1*, pp. 15-27, 1995.

설 수 황(Su-Hwang Seol)

[정회원]



- 2011년 8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스포츠레저학과 (스포츠레저학 석사)
- 2014년 1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스포츠레저학박사수료)
- 2011년 9월 ~ 현재 : 체육연구소 전문연구원

<관심분야>
스포츠IT, 스포츠여가

여 인 성(In-Sung Yeo)

[정회원]



- 1987년 7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석사)
- 1992년 6월 : The Ohio State Univ Ph. D.(체육학박사)
- 1994년 3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관심분야>
스포츠IT, 스포츠역사

안 병 욱(Byoung-Wook Ahn)

[정회원]



- 2005년 8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체육학과 (사회체육학석사)
- 2009년 8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체육학과 (사회체육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교 신체활동디자인학과 교수

<관심분야>
여가사회학, 여가학연구법, 레저스포츠